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독특한 사사 삼손

성경: 사사기 16장 23-31절

Tag:

23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4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5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26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27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뺄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삿16:23-31)

마침내 하나님은 독특한 사사를 예비 하신다.

블레셋 족속은 원래 애게해 밑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려다가 쫓겨나서 팔레스타인 서쪽 해변가에 정착한 민족.

철을 다루는 제철기술이 있어서 누구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는 이미 유다족속을 다스리고 이용해 먹고 있을 정도였다. 유다족속은 차라리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으로서는 모세와 같은 인물을 기대할 수 없었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영성도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독불장군(독고다이;outsider)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한명의 나실인을 계획하셨다.

-그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생하게 된다.

*하나님은 매우 독특한 캐릭터를 구상하셨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위한 금기 사항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 주셨다.

-그것은 반드시 나실인으로 양육하라는 당부였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양육에 실패한 것 같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지 않았다. 다만, 한가지 머리는 자르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인정하는 유일한 통로가 자르지 않는 머리인 셈이다.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영적 자원이 풍성하지 못하고 약하거나 한두가지로 버티는 경우이다.

-세상은 어치피 영적 전쟁터. 영성이 떨어지면 하는 수 없이 악에 굴복하게 된다.

-만약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무엘 비슷하게 성실하게 영성을 쌓았다라면 그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도 남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으리라.

-중국에도 과거에 삼손과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다. 항우장사.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여자 때문에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된다.

-만약에 항우의 아내 우희가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항우 앞에서 자결하지 않았더라면 항우는 재기를 노렸을지 모른다.

-물론 삼손에게 남겨진 버팀목은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 뿐이었다.

-삼손에게는 여자문제도 있었고, 술 문제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나 행동이 거칠었고, 누구보다 힘이 세서 어느 누구의 힘도 필요 없었다. 결국 스스로 독불장군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것이 편하였다.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끝내 이루어 내고 말았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원하는대로 행동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고 미친짓으로 비쳐졌을 것이고, 아무도 삼손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 하게 된다. 전쟁도 혼자 한다.

-화가 치민다고 가사의 성 문짝을 뜯어내어 헤브론까지 혼자 지고 갔다.

-화가 난다고 300마리 여우를 잡아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불을 질러 보리밭을 모두 살랐다. 매사에 이런 식이다.

-그는 웬지 동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고, 오히려 블레셋 족속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극도로 경계했고, 그 괴물같은 힘 때문에 골치를 앓았다.

-마지막에는 들릴라라는 기생에게 빠져서 결국 머리카락을 다 찢리고 눈까지도 잃게 된다.

-삼손에게도 변명거리는 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과 엮이면서

그들과 시비를 붙어서 해치우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먼저는 딘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

-옷 30벌 내기를 통해서 30명을 죽이고 도망간다.

-장인 어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어 버린다.

-화가 난 삼손은 이를 핑계로 여우 300마리 사건을 만든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 일가를 몰살한다.

-삼손은 한 동네에 들어가 많은 사람을 살육한다.

-그들은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포박해서 넘겨준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다.(엔학고레)

-그후로 삼손은 가사에 가서 기생과 같이 살게 된다.

-매복을 눈치 챈 삼손은 가사의 성문을 열어 헤르본 앞산까지 간다.

-그 후에 삼손은 소렉골짜기의 들릴라를 사랑하게 된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괴력의 비밀을 들릴라를 통해서 알게 된다.

-삼손은 그들에게 머리를 밀리고 힘은 사라져 눈까지 뽑히게 된다.

-그들의 잔치날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다.

*어떻든 완성된 하나님의 사명

*삼손 개인은 처참하게 삶을 마감함

*인간의 나약함, 영적으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여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

*그래야 우리도 명예를 얻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 때문이다.

*삼손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는 응답 받는다.

*하나님께는 항상 솔루션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생은 연약하다. 자주 넘어진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

님을 믿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는가?

*

사사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
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원컨대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적 근육이 느슨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견디지 못하는 영혼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평소에 기도생활과 성경을 공부하는 열정을 부어 주시고,

삼손처럼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어지러워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삼손같은 일꾼을 보내 주시어, 이 땅을 구원하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사사기 성경공부 성경:

Tag:

혼돈의 세계에 던져진 이스라엘

-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고 계명을 소홀하게 여긴 이스라엘
-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결국 타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마 일부 깨어있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일 가능성이 크다.)
-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 지도자가 없어서 반복되는 삶

*지도자가 중요하다.

- 오늘도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고난 당하게 되는데, 사사시대 보다는 덜하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아프리카의 족장들)
- 이제는 각 분야별로 지도자가 많다. 각 지역별로 지도자가 많다.
- 지도자의 임기가 짧다. 그만큼 부작용도 적고, 발전은 더디나, 그나마 최선책이다.

*사사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사사기의 신학적 가치

- 여호수아 이후로 지도력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 전면전에서는 승리했으나 국지전에서 남겨진 전쟁이 있음
- 이 전쟁은 다윗시대까지 계속됨.
- 우상숭배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곧 구원사
- 항상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 사사들에게 요구된 사명; 이방 족속을 가나안에서 물리치라.

- 당시의 가나안족속들은 이미 심판 받기로 작정된 민족.

-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사명이 사사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됨

- 왜냐면 아직 사명이 완수되지 않아서.

* 사사들의 실책

- 사사들에게 모세와 같은 영도력을 기대할 수 없었음. 한결같이 부적격자들이었으며, 삼손은 그들 중 가장 심하게 부적격한 성품을 지닌 자. 그러나 그가 사사들 중 가장 유명하다.(가장 또라이라서)

- 요즘도 은사 많고, 시끄러운 자들이 유명해지고 독선적이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자들도 필요할 정도로 혼란하다. 시대가 그를 광화문으로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 모든 사사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여전히 영적 인격적 사회적 문제아들.

- 잘 굴러가지 못하는 자동차.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대로 캐릭터를 잘 활용하심.

*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적인 무기들을 많이 갈고 닦으라.